

# 금융위기하의 외환수급 전망과 대응방안

한 상 춘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

지난해 말 외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우리 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외환사정이 비교적 원만했다.

우리 경제가 IMF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들이 안 쓰고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해온 데다, 국제기구로부터 외화차입과 외환위기 극복초기 과정에서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자본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나라 총외채(IMF의 대외 지불분담금 기준)는 1,535억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45억달러 정도 감소했다. 가용외환보유고도 452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외환위기 진행과정에서 4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때와 비교해서는 약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원만한 외환수급 사정을 반영하여 각종 금융가격변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한때 달러당 2,0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2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도 30%대에서 한 자리대로 떨어지고 있다. 주가는 이제는 거품을 우려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IMF체제에 접어들지 1년을 맞아 다른 금융위기국과는 달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외환부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경제각료를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끝났다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외환수급 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외환수급 사정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원만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나라가 IMF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위기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외환수급 사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돌아오는 외채상환에 대한 만기연장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는 금융기관과 기업외채에 대한 만기 재연장율은 외채협상을 통한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국내기업의 신규차입 활동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러나 국제금융 및 세계 경제환경의 불안한 감이 가시지 않고 있고 금년 말부터는 1년의 인출기간으로 차입했던 IMF지원자금(New Facility)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 재연장율이 현 수준보다 크게 제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1>)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단기외채비율은 44.3%였으나 외채협상에 따른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총 218억달러중 181억달러가 2년 만기 이상의 중장기채로 전환)으로 단기외채비율은 급격히 둔화

<표-1> IMF 기준 외채의 분기별 만기 재연장을 전망

(단위 : %)

구 분		98년				99년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장기외채	금융부문	-155.0	112.5	90.0	56.7	56.7	66.2	75.6	75.6
	기업부문	424.0	504.0	90.0	47.3	47.3	56.7	66.2	75.6
	공공부문	100.0	100.0	100.0	0.0	0.0	1.5	0.0	0.0
	가중평균	-46.1	151.4	90.0	25.4	28.8	34.5	46.6	59.6
단기외채	금융부문	89.2	54.7	83.0	66.2	66.2	70.9	75.6	75.6
	기업부문	47.6	82.7	90.0	80.3	80.3	85.1	89.8	89.8
	가중평균	76.2	69.5	86.8	73.9	74.0	78.8	83.7	83.8
가중평균 만기재연장을		69.8	81.4	87.3	60.0	61.9	60.2	68.4	73.5

※ 주 : 1) 만기재연장은 (만기재연장분/만기 도래분)×100으로 계산되며 (e)는 예상치임.

2) 만기재연장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만기전 상황을, 100보다 큰 것은 신규차입을 의미함.

※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대우경제연구소.

<표-2> IMF 기준 외채의 분기별 만기상환 스케줄

(단위 : 억\$)

구 분		1998				1999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장기외채	금 용 부 문	14.2	22.6	16.1	19.3	17.6	36.8	37.3	45.2
	기업부문(금융기관 보증)	3.3	2.5	6.6	4.4	4.8	2.7	5.5	8.7
	공 공 부 문	0.0	0.2	0	27.5	20.0	37.0	25.5	14.5
	합 계	17.5	25.4	22.7	51.2	42.3	76.5	68.3	68.3
단기외채	금 용 부 문	218.9	70.0	60.5	57.4	51.6	46.3	42.3	39.2
	기업부문(금융기관 보증)	98.7	78.0	72.6	69.7	64.2	59.2	55.6	53.4
	합 계	317.6	148.0	133.1	127.1	115.8	105.5	97.9	92.5
합 계		335.1	173.4	155.8	178.3	158.1	182.0	166.2	160.9

※ 주 : 기업의 자기신용에 의한 해외차입금의 상환규모는 고려되지 않았음.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해외차입데이터베이스.

되어 최근 들어서는 20%내의 선까지 떨어지고 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현재까지 IMF 등 국제기구의 장기성 금융지원은 136억달러로 총 지원금 260억달러의 53%에 불과해 이들 기구가 우리나라의 외채만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외채통계상 장기외채로 분류된 것 중 1년

내 만기 도래될 외채는 금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238억달러에 달해 외채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단기외채비율은 39.5%에 달하고 있다. 단기외채에 과도하게 노출된 현재의 외채구조로는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표-2>)

차입주체별·수단별·분기별로 예상되는 만기재연장율을 적용할 경우 외채상환을 위한 외환수요가 도출될 수 있다. IMF기준 외채에서 만기재연장이 어려워 상환해야 할 원리금상환을 위한 수요는 내년 말까지 438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기업의 자기신용에 의한 해외차입금중 재연장이 어려워 상환해야

할 원리금지급분인 133억달러를 합할 경우 내년 말까지 외환수요는 57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1년 만기로 인출했던 IMF 지원금 135억달러(금년 4/4분기에 제8차로 인출예정인 11억달러를 포함한 금액임)에 대한 만기연장협상이 성공할 경우 내년 말까지 필요한 외환수요는 436억달

〈표-3〉 분기별 외환수요

(단위 : 억\$)

구 분		1998				1999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I M F 기준 장기 외채	원 금	25.6	-13.0	2.3	38.2	30.1	50.1	36.5	27.6
	이 자	15.4	18.4	16.6	25.5	20.0	24.2	18.3	22.7
I M F 기준 단기 외채	원 금	75.5	45.2	17.5	33.1	30.1	22.3	16.0	15.0
	이 자	11.5	7.0	7.0	6.8	6.2	5.6	5.1	4.8
I M F 기준 외채 합계 (1)	원 금	101.1	32.2	19.8	71.3	60.2	72.5	52.5	42.7
	이 자	26.8	26.0	23.6	32.3	26.2	29.8	23.4	27.5
	소 계	127.9	58.2	43.4	103.6	86.4	102.2	75.9	70.2
기업자기신용 해외차입금 (2)	원 금	-9.0	-41.3	-6.1	22.3	21.4	12.8	13.4	9.3
	이 자	9.1	9.5	11.1	11.3	11.0	10.6	10.3	10.1
총대외차입금 (1) + (2)	원 금	92.0	-9.2	13.7	93.6	81.7	85.3	65.9	52.0
	이 자	36.0	35.6	34.7	43.6	37.2	40.4	33.7	37.6
	합 계	128.0	26.4	48.3	137.2	118.8	125.7	99.6	89.6
기타 외환수요 (3)	한은지원금반환	70.9	44.6	33.4	0.0	0.0	0.0	0.0	0.0
	해외예치금반환	59.3	17.4	1.5	0.0	0.0	0.0	0.0	0.0
	내국인직접투자	8.4	6.6	0.0	0.0	0.0	0.0	0.0	0.0
	내국인증권투자	-12.1	10.7	0.0	0.0	0.0	0.0	0.0	0.0
	기타 자본수지	0.5	-3.8	0.0	0.0	0.0	0.0	0.0	0.0
	오차 및 누락	5.0	23.7	0.0	0.0	0.0	0.0	0.0	0.0
	합 계	132.0	99.1	34.9	0.0	0.0	0.0	0.0	0.0
(차감) 소득수지중 지급이자 (4)	(16.6)	(16.4)	(16.0)	(20.1)	(17.1)	(18.6)	(15.5)	(17.3)	
외환수요 합계 (1) + (2) + (3) - (4)	243.4	109.1	67.3	117.1	101.7	107.1	84.0	72.2	

※ 주 : 1) 한은지원금 반환이나 한은의 해외예치금 반환은 모두 가용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킴.

2) 기타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수지와 특허권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소득수지중 지급이자분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공급에서 이미 차감되었기 때문에 중복계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환수요에서 차감항목으로 계상하였음.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해외차입데이터베이스

<표-4> 분기별 외환공급

(단위 : 억\$)

구 분		1998				1999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		70.0	18.0	11.0	41.0	2.5	2.5	2.5	2.5
외 평 채 발 행		0.0	40.0	0.0	0.0	0.0	0.0	0.0	0.0
외 국 인 직 접 투 자		5.0	8.0	3.0	3.0	4.0	4.0	6.0	6.0
외국인 증권 투 자	주 식 투 자	28.4	-0.8	0.0	0.0	10.0	20.0	20.0	30.0
	채 권 투 자	2.1	-19.5	0.0	0.0	0.0	0.0	0.0	0.0
	파 생 상 품	-4.0	-4.1	-5.0	-6.0	-5.0	-4.0	-3.0	-2.0
	합 계	26.6	-24.4	-5.0	-6.0	5.0	16.0	17.0	28.0
경 상 수 지 자 혹	상 품 수 지	95.4	117.7	93.2	106.2	88.9	78.0	77.4	82.8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	18.9	9.7	6.6	5.2	5.0	3.7	2.7	1.9
	소 득 수 지	-7.5	-10.4	-19.0	-20.0	-19.0	-22.0	-21.0	-24.0
	합 계 (경상수지)	106.8	117.0	80.8	91.4	74.9	59.7	59.1	60.7
해 외 예 치 금 유 입		59.3	17.4	1.5	0.0	0.0	0.0	0.0	0.0
외 환 공 급 합 계		267.7	175.9	91.3	129.4	86.4	82.2	84.6	97.2

※ 주 :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는 국제수지 기준이나 채권투자에서 외평채 발행액만큼 차감했음.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경제전망, 해외차입데이터베이스

러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표-3>)

경상수지는 금년 들어 분기마다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수출이 수입유발형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수입감소가 향후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져 경상수지흑자는 분기 평균 70억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채탕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고 국제 금융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국인의 실물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외환공급 역시 크게 증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지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투자적극단계로 진입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이 환위험과 신용위험은 높은 반면 투자수익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통한 외화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사실 금년 2/4분기중 회사채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연 18%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국내채권시장에서 약 20억달러의 투자자금을 회수해 갔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대외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나 앞으로 국제금융 및 실물시장의 위기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말까지 총 외환공급은 480억달러에 그치고 이는 분기평균 96억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내년 4/4분기 중 IBRD의 구조조정 지원자금 20억달러와 ADB의 지원자금 잔여분 10억달러 등 30억달러의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환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표-4>)

앞에서 언급한 만기 재연장율(60%)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여 외환수급을 추정할 경우 내년 말에는 가용외환보유고가 현재와 비슷한 429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외채(IMF 기준)는 현재보다 약 250억달러가 줄어들어 1,282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분기별로는 내년 1/4분기에 15억달러의 순유출, 2/4분기에 25억달러의 순유출이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외환수급이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제 금융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

우리 나라 외채의 평균 만기재연장율이 50%로 떨어질 경우 외환순유출 규모가 149억달러로 확대될 것이고, 반대로 국제금융시장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 만기재연장율이 70%로 회복될 경우 외환순유입 규모는 177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참고로 만기 재연장율이 56.6%에 도달할 경우 금년 4/4분기에 외환공급과 수요가 일치되어 외환보유고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아직도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일치된 견해

<표-5> 외환보유고 및 외채 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8				1999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외 환 공 급		267.7	175.9	91.3	129.4	86.4	82.2	84.6	97.2	
외 환 수 요		243.4	109.1	67.3	117.1	101.7	107.1	84.0	72.2	
외 환 순 유 입		24.2	66.9	24.0	12.3	-15.3	-24.9	0.6	25.0	
총 외 환 보 유 고		297.5	409.0	466.4	478.8	463.5	438.6	439.2	464.1	
가 용 외 환 보 유 고		243.1	372.0	430.9	443.3	428.0	403.1	403.7	428.6	
IMF 기준 외채	장기외채	금융부문	647.7	650.5	648.9	640.5	632.9	620.5	611.4	600.4
		기업부문	187.0	197.2	196.6	194.3	191.7	190.6	188.7	186.6
		공공부문	250.3	308.3	319.3	332.8	315.3	281.3	258.3	246.3
		합 계	1,085.0	1,156.0	1,164.7	1,167.6	1,139.9	1,092.3	1,058.3	1,033.2
	단기외채	금융부문	233.3	201.6	191.3	171.9	154.4	140.9	130.6	121.1
		민간부문	195.0	181.5	174.3	160.6	147.9	139.1	133.4	127.9
		합 계	428.3	383.1	365.6	332.4	302.4	280.0	264.0	249.0
	합 계 (단기외채비율, %)		1,513.3 (28.3)	1,539.1 (24.9)	1,530.3 (23.9)	1,500.0 (22.2)	1,442.3 (21.0)	1,372.3 (20.4)	1,322.4 (20.0)	1,282.2 (19.4)

\* 주 : 1) 정상수지에서 이차지급분을 고려하여 외환공급분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외환수요분에서 이차지급분을 차감시켜 이중계산문제를 해소하였음.

2) 외환순유입에는 한은의 은행지원금 반환액과 해외예치금 반환액이 포함되지 않았음.

3) 한은의 해외예치금 잔액 35억달러와 한은의 은행지원금 잔액 84억달러는 '99년말까지 변동 없다고 가정하여 (가용)외환보유고를 추정하였음.

4) IMF에서 1년만기로 인출하였던 지원자금은 만기 재연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장기외채로 분류하였음.

5) 외채협상으로 단기외채가 '98년 4월초에 중장기 외채로 전환되었으나 분석 목적상 1/4분기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였음.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해외차입데이터베이스

〈표-6〉 외환보유고 및 외채 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8				1999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수입금액의 3개월분 (1)	230.7	231.4	198.4	216.0	203.6	215.0	196.2	223.2
3개월내 만기도래 외채 및 이자 (2)	167.8	158.8	188.7	165.9	192.9	176.5	180.8	274.8
적정 외환보유고 (1) + (2)	398.5	390.2	387.1	381.9	396.5	391.5	377.0	498.0
예상되는 가용외환보유고 (3)	243.1	372.0	430.9	443.3	428.0	403.1	403.7	428.6
과부족 (3) - (1) - (2)	-155.3	-18.2	43.8	61.3	31.5	11.6	26.7	-69.4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해외차입데이터베이스

는 없으나 적정 외환보유고가 국제금융과 무역환경의 심각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예를 들면 3개월) 버틸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무역환경의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금액의 3개월분(IMF 권고사항)을 비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금융 환경의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내(무역부문에서의 위기관리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것에 대응한 것임) 만기 도래하는 외채상환분(이자지급분 포함)을 지급준비로 비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판단에 의하면 기업 무역신용과 관련된 외채의 3개월내 만기 도래분의 40%만 지급준비로 비축해 두면 무난할 것 같다. 국제금융과 무역환경은 동시에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의 양 비축분을 동시에 축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 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를 추정해 보면 금년 9월말정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은 387억달러가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정 외환보유고를 추정해 볼 경우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외채상환 스케줄에 근거하면 내년 4/4분기에 필요한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은 498억달러에 달하나

이때 예상되는 외환보유고 수준은 429억달러에 불과하여 69억달러가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채협상에 따라 2년 만기 장기채로 전환된 외채(98.2억달러)의 상환이 본격화될 2000년 1/4분기부터 장기외채의 만기 상환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표-6〉)

한편, 금년 9월말 미국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으나 지금 세계경제의 현안인 중남미, 러시아 등 개도국 금융위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특히 IMF의 지원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외환수급 사정은 언제든지 악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외환정책은 단순히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에 전가시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 폭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외국인의 대규모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으로 귀결될 것이다.

먼저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된다거나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에게는 무역신용을 대폭 확대시켜 상품수지의 흑자폭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외환이 “오차 및 누락”으

로 이탈되는 현상<sup>1)</sup>을 막고 가능한 한 외환보유고로 확충시켜 미래의 대규모 상황에 대비하고 외환보유고의 사용을 무역금융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체계적인 외환관리정책이 요구된다.

이런 경우 외환보유고는 증가하나 시중 외환수급은 불균형 상태로 빠져들 수 있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고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유도하여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는데도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위기를 탈출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입은 탈출시기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경기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부문의 잉여자금이나 통화의 신규공급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당 연구소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의 자금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해외부문에서의 자금잉여가 약 22조(157억달러)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자료에서 다소 비관적으로 추정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23억달러)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시켜 주고, 인수기업에 대한 가치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업 부채탕감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합의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국은 성실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 부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 경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법적,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다 장기적인 수급 전망에 근거하여 외환보유고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외환위기가 다시 한번 닥쳐올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의 외환위기 때보다 그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는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이 와해될 것이며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다소 비싼 조달금리를 제공하더라도 장기외환 조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135억달러의 IMF 지원자금의 만기연장 협상을 성공시켜 국제금융 환경이 악화되어 만기재연장율이 50%로 떨어지더라도 견뎌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33.5억달러의 제2선자금(선진국 협조융자)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2000년의 대규모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평채의 추가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어떠한 대외환경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도 조기에 매듭지어 수출구조를 품질, 디자인과 같은 가격이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제는 기업들은 생존의 핵심역량을 규모나 범위의 경제보다는 위기관리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기업차원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1) 97년 3/4분기 이후 98년 2/4분기까지 약 71억달러의 외환 이탈이 발생하였음.